

열구 엔진

열구 엔진은 단순 내연기관으로 1886 년 영국에서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혼스비 아크로이드 석유 엔진(Hornsby-Akroyd oil engine)이라는 초기 형식의 엔진이 몇 년 후 일본에 들어왔으며, 일본 국내 제조자가 이를 개조했습니다. 열구 엔진은 사용이 간편하고 제조하기 쉬우며 저렴한 연료로 작동했습니다. 1913 년 수 척의 참치 어선이 앞바다에서 큰 폭풍에 휩쓸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구시로 어부들은 이 엔진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사용했습니다. 이 사고에서는 참치 어선들이 항구로 돌아가지 못해 어부 63 명이 사망했습니다. 열구 엔진 덕분에 어장 왕복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출어 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열구 엔진이 있는 배는 엔진의 리드미컬한 소리 때문에 ‘통통배’라고 불렸습니다. 1950 년대에 들어서 열구 엔진은 더 강력한 디젤 엔진으로 서서히 대체되었습니다. 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열구 엔진은 1952 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